

2023. 5. 17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

도 시 철 도 과 장	김지형	2133-4331
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도시철도총괄팀장	임국현	2133-4333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7매

담 당 자	이혜린	2133-4344
--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, 전동차 내 행선안내기 화면표기 개선...역 이름 확인 쉬워진다

- 환승역 안내, 부가정보, 불필요한 문구 간소화...역이름 표출 시간·빈도 ↑
- 노약자 등 교통약자 위해 국문 표출 비율 늘려...시민 누구나 도착역 쉽게 확인
- '23년 7월까지 2·4호선 열차 우선 추진, “시민 모두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”

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시 열차 안에서 도착역을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도착역을 표시하는 ‘행선안내기’ 화면에서 역명정보를 더 간결하고 오래 표출하도록 개선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이어폰을 꺼도 역명을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※ 열차 내 행선안내기는 열차의 중간 또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도착역, 환승역 정보 등을 알려주는 장치로, 시민들은 이를 통해 도착역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.

서울시는 열차 내 행선안내기를 통해 도착역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 행선안내기 정보 표시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- 서울교통공사 민원접수창구인 ‘고객의 소리’에 도착역 정보를 알기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’22년 한해동안 819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행선안내기의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는 상황이다.
 - 특히, 2호선 구형 전동차의 경우 광고면적이 80% 이상을 차지하며, 도착역 등 필수정보 대신 진행방향, 환승정보 등 부가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있어, 도착역명을 한번 놓치면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0초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.
- 시는 ‘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’를 위하여 지난 1/4분기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고, 지하철 도착역 정보 시인성 개선은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다.
- 시는 우선 승강장안전문(PSD;Platform Screen Door)에 도착역명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열차 창문을 통해 도착역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개선을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이며,
 - 이번 행선안내기 표기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도착역이 어디인지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- 이번 ‘행선안내기 정보 표시방식 개선’은 부가정보 안내문구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문구는 표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표출한다.
- 예를 들어 현재 2호선의 경우 ‘이번역은’, ‘00행으로 가실 고객께서는’과

같은 정보를 3초 이상 표시하고, 영문으로도 'This Stop is'와 같은 부가정보도 3초 이상 표시하고 있다. 서울시는 이같은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신 역명 표출시간 및 빈도를 늘릴 계획이다.

- 또한 4호선의 경우 도착역명을 LED 상단에 고정으로 표출시키고, LED 하단에 부가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도착역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


- 이에 더해 전반적으로 국·영문 표출 비율 변경을 통해 국문 역명이 표출되는 빈도를 높여 일반 시민이 도착역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
- 기존에는 국문과 영문 표출빈도가 동일하였으나, 상대적으로 영문이 국문보다 긴 까닭에 영문 표출시간이 국문보다 더 긴 경우가 많았다.

- 일반 시민 및 노약자의 경우 통상 영문 정보보다 국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므로 국·영문 정보 표출시간 비율을 기존 1:1에서 2:1 이상으로 개선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도착역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서울시는 열차 내 행선안내기 표출방식 개선을 통해 2호선의 경우 국문 도착역명 표출시간이 현행 15초에서 59초로 293% 개선되고, 4호선의 경우 국문 도착역명 표출시간이 현행 52초에서 95초로 83%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- 서울시는 우선 시민 불편 민원이 집중된 2, 4호선 구형 전동차의 행선안내기 정보 표시방식 개선을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하고, 이후 신형 전동차 및 타호선의 행선안내기 정보 표시방식도 연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이와 같이 도착역명 표출 시간 및 빈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행선안내기를 통해 도착역명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,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여 목적지를 지나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도착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오래된 불편민원이 행선안내기 표기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면밀히 살피고,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호선별 행선안내기 개선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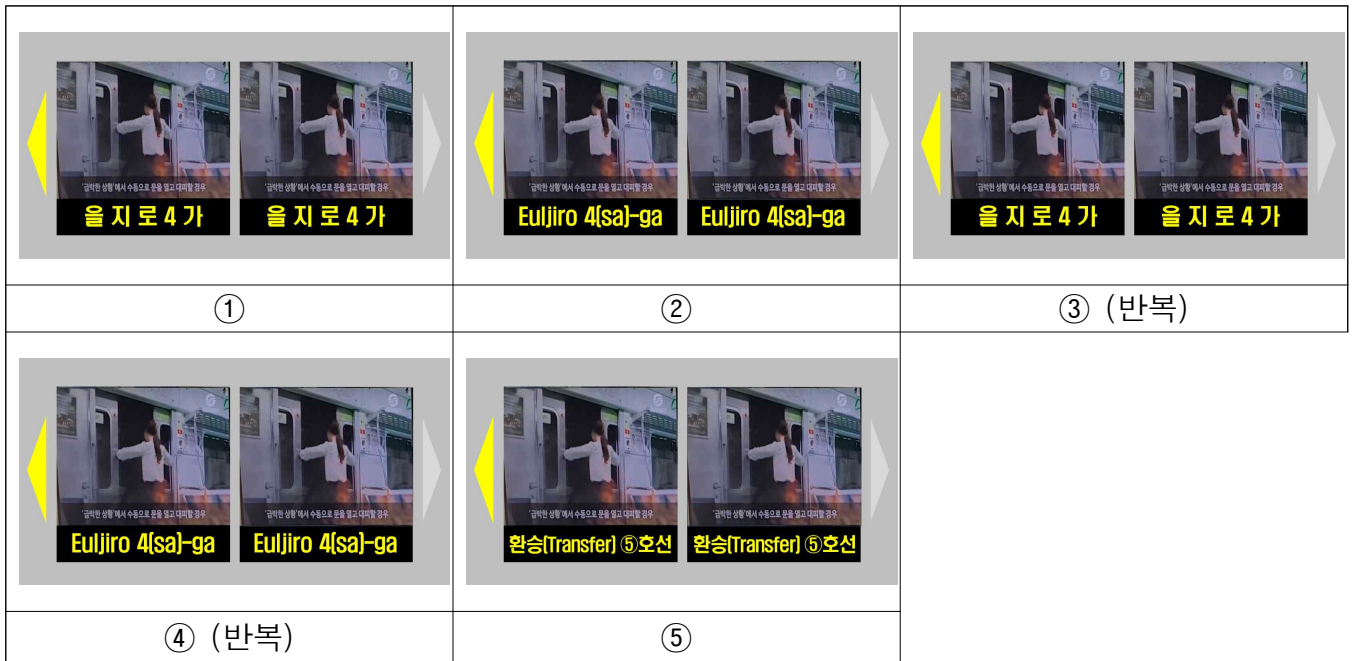
□ 2호선 구형 전동차

○ **현행 표출방식**



※ 도착역명(국문) 표출시간 평균 15초

○ **변경(안)**



※ 국문 표출시간 : 영문 대비 2배 이상 예시) 국문 역명 16초 표출 후 영문 역명 6초 표출

※ 도착역명(국문) 표출시간 평균 59초



□ 4호선 구형 전동차

○ 현행 표출방식

화면 및 문구		
		
①	②	③
		
④		

※ 도착역명(국문) 표출시간 평균 52초

○ 변경(안) : 안내기 상단에 국문영명 상시 표시

화면 및 문구	
	
①	②

※ 도착역명(국문) 표출시간 평균 95초

※ LED 상단에는 도착역명(국문)을 고정으로 지속적으로 표출